

남원시의 도시경관에 대한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구조와 인지특성

The Visual and Auditory Images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on the Townscapes in Namwon City

한 명 호* 오 양 기**
Han, Myung-Ho Oh, Yang-K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the visual and auditory images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about townscapes in Namwon city. It was acquired the survey results about 8 types of verbal interviews and 2 kinds of sketch maps which are based on urban images from 102 Namwon residents. They held in a variety of images of Namwon in their minds such as Jiri mountain, clean environment, sightseeing, special products, urban/building structures, Korean classical music, historical novel, local sports, and emotional images. The nice streets or places which the residents recommended are the places which have abundant natural areas, psychological peace and rest, available space for physical activity, places for performances and events, and regional attractions. The streets or places which they didn't like are decadent places, and areas of crowded traffic. The transition times of visual and auditory scene can be classified with the Saemaul movement in the 1970's(the rural new community movement) and the improvement of the city in the 1990's. The elements of visual images in Namwon city on the basis of the cognitive maps were expressed such elements as paths, districts, nodes, edges, and landmarks. The elements of auditory images, which are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the soundscape, included sounds of narrative musical form unique to Korea; p'ansori, sounds of traditional markets, and sounds of nature. It was found that the imageability of visual and auditory images is relatively clear in specific areas in Namwon city.

키워드 : 도시이미지, 시각이미지, 청각이미지, 타운스케이프, 사운드스케이프, 남원시

Keywords : Urban Image, Visual Image, Auditory Image, Townscape, Soundscape, Namwon cit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지역의 도시환경 또는 도시경관에 대한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이미지나 정체성(identity)을 회복하고 도시를 새롭게 가꾸어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보다 개성있고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도시의 정서와 문화적 특성을 느끼게 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지역의 큰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마을만들기와 같은 시민참여에 의한 도시가꾸기 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내

재되어 있는 다양한 잠재적 속성을 보다 새롭게 끌어냄으로써 독자적 의미 뿐아니라 도시공간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도시의 관광자원의 활용 뿐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도시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효하다고 하겠다.

도시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이미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케빈 린치(Kevin Lynch, 1960)의 연구 이후 다양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인간의 시각적 감각에 중점을 두고 사람이 어떻게 공간 또는 공간 요소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 시각과 인지구조를 조사해 공간파악의 과정을 명확히 하고 건축과 지역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계획해야 하는가라는 건축계획상의 과제으로써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¹⁾

또한 이들 시각적 경관 뿐아니라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 주저자, 목포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 전임연구원
** 교신저자,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oh@mokpo.ac.kr)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812-B00071)

1)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88), 건축·도시계획을 위한 조사분석방법, pp.94~101.

청각적 경관이라는 소리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자 이념으로써, 1960년대말 쉐이퍼(R.M.Schafer, 1977)에 의해서 성립된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는 건축·도시계획상의 중요한 개념과 사상으로 전개되고 있다(鳥越けい子, 1999).

이처럼, 도시공간의 물리적 공간에 있어서 시각적 이미지 특성 뿐 아니라 청각적 이미지 특성을 배려하여 도시공간의 이미지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개성있고 매력적인 도시의 어메니티(amenity)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도시의 시각적 경관의 인지구조와 더불어 청각적 경관환경의 인지특성을 파악하고 그 도시의 소리환경의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도시경관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테마라고 생각된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시각과 청각의 경관환경 자원을 주민의 의식으로부터 파악하고, 특히 소음이라는 종래의 개념과는 다른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라는 관점에서 도시경관(townscape)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보다 ‘남원다움’이라고 하는 독자적 지역성을 표출할 뿐 아니라 지역의 어메니티(amenity) 환경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려는 시도로부터 출발하여, 어떻게 하면 도시의 물리적 구성요소로서 시각과 청각을 포함한 경관을 표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점은 우선 도시디자인과 도시이미지 관계에 있어서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람들이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²⁾ 따라서, 이 연구는 도시의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인지(cognition)하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 특성을 파악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인지도로부터 어떠한 시각적 경관의 이미지 구조와 특성이 표출되는 지, 또한 청각적 경관이라는 사운드스케이프의 관점에서 도시의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어떠한 이미지특성으로부터 지역의 정체성을 이끌어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시이미지에 관한 의식조사의 방법과 내용

2.1 도시경관에 관한 개념

경관은 시점장(視點場)에서의 시각이나 시야에 의한 범주 및 거리로 부터 대경관(大景觀), 중경관(中景觀), 소경관(小景觀)의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대경관(landscape)은 지형이나 입지에 따른 자연의 경관으로, 원거리에서 풍경으로 조망하는 경관이며 인간이 조작하기가 힘든 수동적인 경관이다. 도시의 대경관은 자연과 인공물이 뒤섞여 있는 도시의 아이덴티티가 표출하는 경관으로 도시환경을 생각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중경관(townscape)은 도시의 면적인 지역경관으로, 모든 것을 한눈에 조망할 수는 없지만 이미지 속에서 일체로서 느낄 수 있는 경관이다. 도시의 공간인지·파악의 구조를 분석한 것에 케빈 린치(Kevin

2) 도시디자인연구회 옮김(1997), 도시디자인수법, 발언, pp.49~50.

Lynch)의 『도시의 이미지(The Image of the City)』가 있다. 린치는 이미지맵을 그리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시각적 경관을 논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식별성(legibility)을 도입하고 있다. 중경관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소경관(streetscape)으로서,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시각적으로도 파악하기 쉬운 「가로의 경관」이며, 하나의 길과 양측의 건축이나 광장 등으로 구성되는 가장 우리 생활과 가까운 경관이다.³⁾ 이 연구는 중경관(townscape)의 개념으로부터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구조와 인지특성을 조사·분석한다.

2.2 도시이미지의 조사방법

도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구조와 인지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남원시를 모델로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조사하는 인터뷰 조사방법을 채용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지역의 다양한 이미지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8가지의 자유기술형식의 질문⁴⁾과 시각과 청각의 인지지도(image map) 그리기로 구성된 내용을 전북 남원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조사내용을 충분히 교육·숙지한 5명의 조사자가 2004년 11월에 2주간에 걸쳐 조사하였다. 조사자는 남원시의 거리에 대해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남원 태생의 대학교 건축공학과 재학생들로서, 남원시 중심부를 5곳의 영역으로 분할⁵⁾하여 거리 곳곳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여 면담조사하였다. 그림1은 인터뷰 조사 대상지역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남원시의 인터뷰조사 대상지역

- 3) 일본건축학회편, 배현미/김종하 역(2002), 인간심리행태와 환경디자인, 보문당, pp.276~279.
- 4) 도시의 시각과 청각의 경관에 대한 이미지의 조사에 있어서, 한정된 이미지를 응답자들에게 묻는 선택적 응답방식을 채용하기 보다는, 비록 분석상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지만 보다 폭넓은 지역의 이미지 특성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유응답식 질문을 채택하였다.
- 5) 남원시의 도시공간을 중심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5개 지구로 분할하여 5명의 조사자가 해당 지구의 응답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면담조사하였다.

표 1. 인터뷰조사의 항목과 내용

분류항목	번호	조사항목	조사내용	비고
자유기술형식	1	응답자의 개인적 속성	응답자의 개인적 속성과 거주속성의 조사	선택응답
	2	남원에 대해 떠오른 이미지	이미지조사에 대한 자연스러운 생각을 이끌어내고, 도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남원의 전체적인 이미지 조사	자유응답
	3	좋아하는 거리/장소와 이유	남원시의 도시공간과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인지하는 시각적/청각적 경관에 대해서 좋아하는/싫어하는 장소 또는 거리의 특성 조사	자유응답
	4	싫어하는 거리/장소와 이유		
	5	시각적 경관이 크게 변화한 시기와 이유	주민이 인지하는 시각과 청각의 경관 변화시기로부터 도시의 시각과 청각의 경관적 변화시기 및 특성 조사	자유응답
	6	청각적 경관이 크게 변화한 시기와 이유		
	7	시각적 경관으로서 추천할만한 거리/장소와 이유	남원시의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시각과 청각의 경관환경을 파악하고, 지역의 경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자유응답
	8	청각적 경관으로서 추천할만한 거리/장소와 이유		
인지지도 그리기	1	시각의 인지지도 그리기	도시경관(Townscape)적 관점에서 주민이 인지하고 있는 시각적 경관의 인지구조 조사 - Kevin Lynch의 도시이미지 조사방법을 적용	자유묘화법
	2	청각의 인지지도 그리기	도시경관(Townscape)적 관점에서 주민이 인지하고 있는 청각적 경관의 인지구조 조사 - R. Murray Schafer의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을 활용	공간요소 도시법

2.3 남원시의 연혁 및 도시특성

685년 통일신라 신문왕 5년에 9주 5소경의 하나로 남원 소경이 설치된 이래 성장·발전해 온 남원시는 면적 752.12 km², 인구 104,198명(2002년)으로써, 지리산 북서쪽에 위치하여 동쪽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쪽은 전라북도 임실군과 순창군, 남쪽은 전라남도 구례군과 곡성군, 북쪽은 전라북도 장수군에 접해 있다. 1931년에 남원면에서 남원읍으로 승격되고, 이후 50년이 지난 1981년 남원시로 승격되었으며, 1995년 남원시와 남원군이 통합되어 남원시로 설치되었다.⁶⁾

삼국시대부터 전라도 일대를 다스리는 지방행정의 중심지인 남원은 우리나라에서는 평양, 경주, 전주와 더불어 정자형(井字形) 시가지로써 대표적 도시이기도 하다. 국악의 성지 및 판소리의 발상지로서 동편제의 고장인 남원은 관광문화 유적으로 광한루원, 만인의총, 만복사지, 교룡산성, 남원성, 남원향교, 남원관광단지 등이 시내권에 포함되어 있고, 춘향제, 흥부제, 바래봉 철쭉제, 황산대첩제 등의 민속축제와 목기, 부채, 식도, 한지, 짚그릇 등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있다.⁷⁾

2.4 도시이미지의 조사내용

사람이 어떻게 공간 또는 공간요소를 파악하고 있는가의 시각과 인지구조를 조사해 공간파악의 과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건축과 지역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계획해야 하는가 라는 건축계획상의 과제로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써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개인의 심리적 공간을 추출하여 연구소재로 하는 방법에는 면접과 질문에 의해 언어적으로 그 내적 이미지를 청취하는 방법과 어떠한 재료를 이용하여 지면상 또는 도면상에 그 이미지를 기입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⁸⁾

이 연구는 남원시의 도시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터뷰조사의 질문항목을 8가지 종류의 자유기술형식의 질문과 2가지 종류의 시각과 청각의 인지지도(image map) 그리기 수법을 적용하였다. 표1에 인터뷰조사의 항목과 내용을 보인다. 자유기술형식의 질문의 내용은 응답자의 개인적 속성, 남원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 남원에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리/장소, 남원의 시각과 청각의 경관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는 시기와 이유, 남원의 시각과 청각의 경관으로써 추천할만한 장소/거리 등이다. 인지지도(image map) 그리기는 케빈 린치(Kevin Lynch)의 이미지맵과 동일한 도시의 시각적 인지지도 그리기(자유묘화법)⁹⁾ 방법과 청각적인 특징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을 인지지도상에 표시(공간요소도시법)하는 수법을 활용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입함과 동시에 인지지도를 그리도록 하였다.

3. 도시이미지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3.1 인터뷰 응답자의 속성

인터뷰조사 응답자는 표2에 나타난 것처럼,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102명으로, 성별은 남자 67.6%, 여자

8)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88), 건축·도시계획을 위한 조사분석방법, pp.94~101.

9)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88), 건축·도시계획을 위한 조사분석방법, pp.94~101. 자유묘화법의 최대장점은 조사자측의 유도효과가 가장 작아 응답자의 의식공간이 직접적·종합적으로 표현된다는 점으로 케빈 린치의 조사에서 유래한 것이며, 공간요소도시법은 공간요소에 관하여 그 인지의 유무와 평가를 그림상에 나타내는 방법으로써 공간상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청각은 시각과는 달리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기에, 요소 하나하나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6) 남원시(2004), 제9회 남원통계연보, 중앙인쇄사.
7) 출처 :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http://www.tournamwon.org/namwon_festiv/index.htm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속성

구분		집단	빈도(명)	비율(%)	
개인속성	성별	남	69	67.6	
		여	33	32.4	
	연령	20대	38	37.3	
		30대	24	23.5	
		40대	17	16.7	
50대		21	20.6		
60대	2	2.0			
거주속성	주거위치	중심부	15	14.7	
		동부	12	11.8	
		서부	23	22.5	
		남부	7	6.9	
		북부	19	18.6	
		야외	26	25.5	
주거기간	주택 거주기간	5년이하	32	31.4	
		6~11년	17	16.7	
		11~20년	27	26.5	
		21~30년	17	16.7	
		31~40년	6	5.9	
		41년이상	3	3.0	
		남원 거주기간	5년이하	17	16.7
			6~11년	9	8.9
			11~20년	18	17.6
			21~30년	30	29.4
31~40년	15		14.7		
41년이상	13	12.7			
합 계			102	100	

31.4%이며, 연령대는 20대~50대의 청장년층이다. 주거위치는 남원시의 도시중심부를 분할하여 구성한 5곳의 지구에 대해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한다. 주택의 거주기간은 5년 이하가 가장 많고 대부분 30년 이하이며, 남원의 거주기간은 21~30년이 29.4%로써 가장 많고 41년 이상도 높게 나타나 남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는 응답자가 많이 분포한다.

3.2 남원에 대해 인지된 이미지 요소

그림2는 남원시의 응답자들에게 남원에 대해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 자유응답식 질문을 한 응답결과를 KJ법적 분류10)에 의해 정리한 것이다.

그림211)로 부터, 남원에 대해서 시민의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는 이미지 요소는, 인지도중 빈도가 높은 순으로 도시·건축물, 특산물, 역사소설, 지리산, 관광, 국악, 의미, 환경, 운동 등 다양한 요소들이 기억되고 있다. 특히, 응답결과 2%이상¹²⁾의 인지도를 나타낸 요소는 광한루(10.4%), 추

어탕(7.2%), 지리산(6.8%), 만인의총(5.7%), 춘향이(4.7%), 목기(공예) (4.6%), 춘향제(4.3%), 흥부제(4.3%), 관광(양림)단지(3.2%), 판소리(2.9%), 춘향전(2.5%), 음악분수대(2.2%), 이도령(2.2%)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것을 그림2의 중분류상의 의미로 나타내면, 지리산, 축제·행사, 먹거리, 특산물, 전통건물, 판소리, 춘향전 등, 남원시의 대표적인 이미지 요소로써 특징지을 수 있다. 이와같이 다양한 이미지 구성요소와 특징들이 남원의 지역주민들에게 인지되고 있다.

3.3 남원시의 좋은 거리/장소

표3은 남원시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되는 거리/장소에 대한 응답결과를, 전체 응답자의 빈도중 2%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곳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KJ법적 분류방법을 이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주로 경관(풍경), 안정과 휴식, 운동, 공연행사, 역사·문화, 그리고 지역적 명소 등의 이유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남원의 도시공간의 물리적 구조와 특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남원시민을 위해 시각적으로 풍부한 자연경관(풍경), 심리적 안정과 휴식,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공간, 남원의 지역적 독자성을 표출할 수 있는 공연·행사를 위한 장소, 그리고 역사·문화 등의 특성을 표출하는 지역적 명소 등을 좋은 거리 또는 장소로써 인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3.4 남원시의 싫은 거리/장소

표4는 남원의 싫은 거리/장소에 대한 응답결과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빈도중 2%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곳,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KJ법적 분류에 의해서 정리한 것이다.

남원시 중심지를 대상으로 향락·퇴폐, 보행불편, 교통혼잡, 불법주차, 접근불편 등에 대한 사항이 가장 많은 지적을 보인다. 즉, 남원시민은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곳, 불법주차 및 교통혼잡에 의한 좁은 가로공간의 문제를 가장 싫은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남원의 좋은/싫은 거리 또는 장소를 남원시의 지도상에 표현하면 그림3과 같다. 이중, 관광(양림)단지과 제일은행사거리리는 좋은/싫은 거리 또는 장소라는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관광(양림)단지는 경관(풍경), 자연환경, 꽃·단풍, 안정과 휴식, 단체활동과 운동, 공연행사 등의 이유에서 좋은 거리/장소로 인식되지만, 향락, 부조화, 소음 등의 이유로 싫은 거리/장소로 인식된다. 또한, 제일은행 사거리리는 활력, 쇼핑, 중심번화가라는 점에서 좋은 거리/장소로 인식되지만, 도심공동화, 좁은도로, 보행불편, 교통혼잡, 불법주차, 위험이라는 점에서 싫은 거리/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공간 또는 장소의 긍정적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주민들의 커뮤니티(community) 및 문화적 활동(activity)을 증진시키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시각적·청각적 경관의 추천장소

4.1 시각적 경관의 추천장소

표5는 남원의 시각적 경관의 추천 장소와 이유에 대한

10)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88), 건축·도시계획을 위한 조사분석방법, pp.62~66. 수집하여 축적된 정보중에서 당면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것을 추출하여 서로 관련되는 것끼리 연결하여 정리하고 종합하는 방법의 하나로, 특히 질적으로 변화가 풍부한 정보내용의 구조과약에 유효하다. 이방법은 응답자들의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하는데 유용한 수법으로, 카와키타 지로(川喜田二郎)에 의해 자연과 사회,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성립하며 그곳에서 한변밖에 일어나지 않는 야외현장의 조사경험에 입각하여 개발한 것이며, 그의 머리글자를 따서 KJ법이라 부르고 있다.

11) 그림2의 괄호안의 수치는 응답자들의 지적율을 나타낸 것으로써 수치가 높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항목간의 화살표는 항목간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12) 응답한 수많은 개별적인 내용들을 논문상에 모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응답자중 2%이상의 지적율을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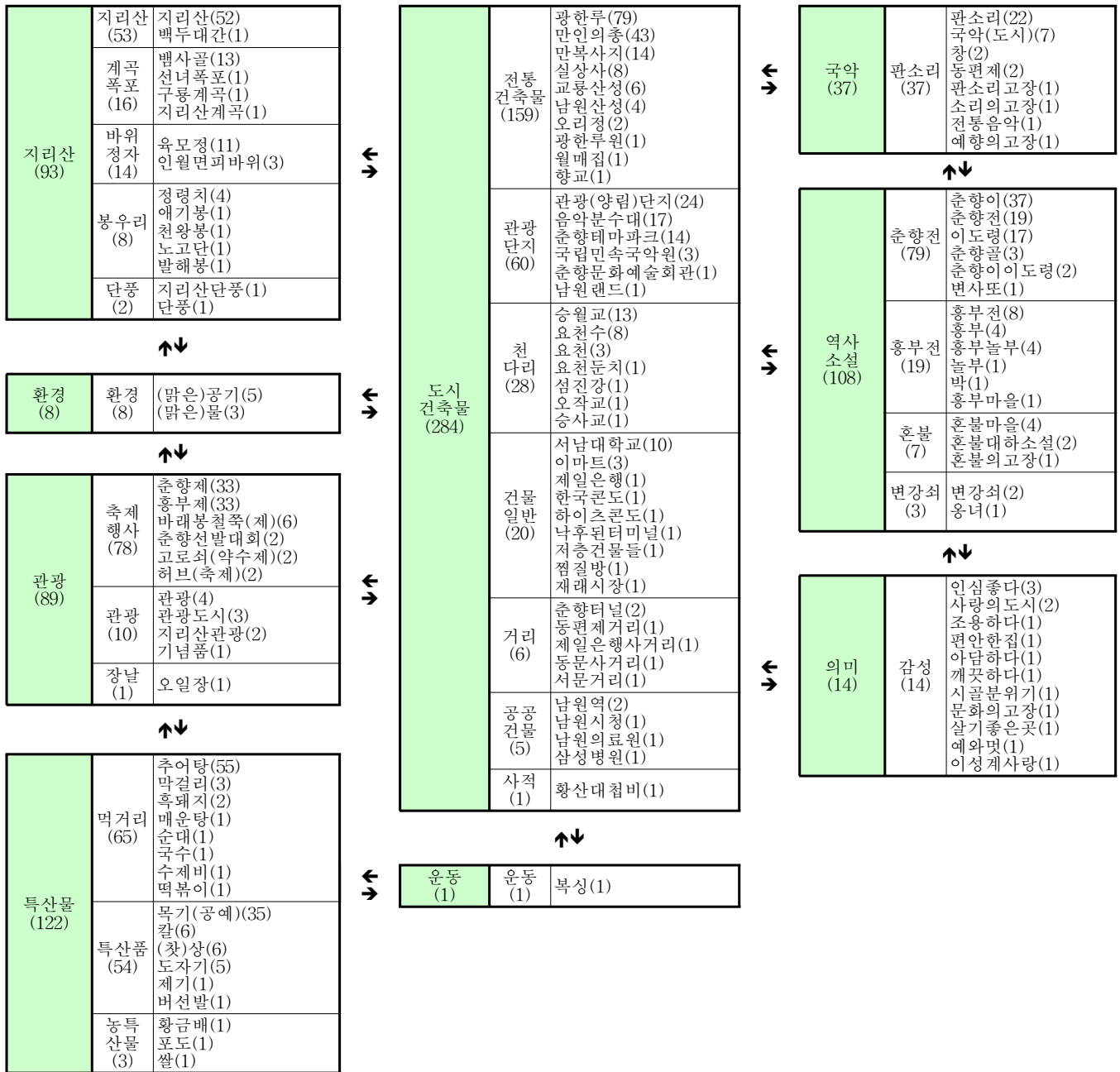


그림 2. 남원에 대해 떠오른 이미지

질문항목의 응답결과를 분류·정리한 것이다.

다양한 추천장소를 살펴볼 수 있으며, 그중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추천이유는 경관(풍경), 꽃, 안정·휴식, 분수·조명, 역사·전통, 지역명소 등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다. 즉, 시각적 경관중에서 자연적 경관(풍경)과 심리적 안정,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표출하는 곳을 가장 추천할만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4.2 청각적 경관의 추천장소

남원의 청각적 경관의 추천 장소와 이유에 대한 질문항목의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표6과 같다.

국립민속국악원, 음악분수대, 춘향문화예술회관, 춘향테마

파크 등과 같이 관소리를 중심으로 한 남원의 전통적 소리를 공연하거나 행사하기 위한 장소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더불어 지리산, 요천, 만인의총의 자연의 소리, 그리고 음악분수 등과 같이 생활환경에서 나타나는 청각적 경관을 들 수 있다.

그림4는 시각적·청각적 경관에 대한 추천장소를 남원시의 지도상에 표시한 것이다. 시각적·청각적 경관을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장소는 광한루원, 관광(양림)단지, 춘향테마파크, 음악분수대, 요천 등으로, 자연경관, 역사와 전통(관소리), 지역명소, 공연행사 등의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남원의 시각적·청각적 경관의 변천

표 3. 남원의 좋은 거리/장소와 이유

좋은 거리/장소 좋은이유	관광양 립단지	요천변 산책로	출향 테마파 크	광한루 원	음악 분수대	만인의 총	요천일 대	팔각정	동편제 거리	승월교	학생 종합회 관	제일은 행사거 리	관광단 지 강변로	지리산	합계
아름다움		3	1	1			1			1				2	9
청결	1														1
경관(풍경)	3	4	2	3			2	1	1	1			1	1	19
자연환경	1	1											1		3
상쾌		3			1		3								7
꽃·단풍	2	1											2		5
친밀감					1				1						2
활력	1				1							1			3
안정휴식	9	3	2	2	8	4	2		5		1		1		37
분수음악					2					3					5
조망								5							5
대화장소					1										1
단체활동	4				2										6
운동	4	3			1	5	2	3						1	19
자유통행		1													1
교통원활		1													1
접근편리		1			1										2
공연행사	8		3	1						1					13
국악전통			4		1										5
정보학습						1					6				7
쇼핑												2			2
역사문화			2	6		4									12
지역명소	2		5	7										1	15
중심번화가												3			3
새롭게조성			2			1				1					4
합계	35	27	21	20	19	15	10	9	7	7	7	6	5	5	193

표 4. 남원의 싫은 거리/장소와 이유

싫은 거리/장소 싫은이유	제일은행 사거리	신남원역	구남원역 뒷거리	시외버스 터미널	시내중심 거리	광한루후 문길	소방사거 리	도통동거 리지구	공설운동 장	구남원역	국민은행 사거리	순창사거 리	관광양립 단지	합계
향락퇴폐			2	1		5		2				1	2	13
도심공동화	2					2								4
무관리			1						1	2				4
음산함			3											3
외관불쾌			1											1
부조화													1	1
좁은도로	4		1	2			2							9
보행불편	2		1	2	2						3	2		12
교통혼잡	7			4			3	1			1	1		17
불법주차	4			1	2	1	1	2						11
접근불편		12							3	2				17
위협	1													1
소음			1										1	1
합계	20	12	10	10	8	6	6	5	4	4	4	4	4	97

5.1 남원시의 시각적 경관의 변천시기

그림5는 도시경관이 시각적으로 크게 변모하였다고 생각하는 시기와 이유에 대한 질문의 응답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주로 1990년대 이후 도시내 다양한 새로운 건축물의 건설과 관광(주택)단지의 조성 등에 의해서 시각적 경관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1990년 이후 남원의 도시발전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크게 변모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들 시각적 경관 변천중에서도 그 전후에 특히 크게 변화하는 축을 분류하면 1970년대와 1990년대 이후의 시기의 2개의 축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70년대 전후의 광한루원의 조성, 공설시장의 건

설 및 새마을운동에 의한 시각적 경관의 변화,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건축물의 건립과 2000년에 큰 변화를 준 도통동 택지구조성을 비롯한 새로운 건축물의 조성을 계기로 남원시의 시각적 경관 변화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5.2 남원시의 청각적 경관의 변천시기

그림6은 남원시의 청각적 경관이 크게 변모하였다고 생각하는 시기와 이유에 대한 질문의 응답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동편제의 고장의 이미지를 갖는 남원은 관광단지 주변 건축물에서 흘러나오는 국악을 자주 들을 수 있

표 6. 남원의 청각적 경관 추천장소와 이유

청각적 경관 추천장소	국립민속국악원	음악분수대	춘향문화예술회관	춘향테마파크	양림단지	광한루원	지리산(계곡)	요천(번)	공설시장	만인의총	사랑의광장	요천 야외무대	용담사	구룡폭포	합계
추천이유															
관소리	15	8	10	9	6	2					2				52
사물놀이				1											1
자연의소리		1					3	2		1				2	9
목탁소리													1		1
동물소리							1								1
경관환경							1	1					2		4
정겨움	1					1		1							3
공인행사	4	5	6	2	1	1					2	1			22
생활									4						4
음악분수		4			2						1				7
역사전통										2					2
지역특성	1			1											2
축제						1		1							2
현장체험				3	1										4
합계	21	18	16	16	10	5	5	5	4	3	3	3	3	2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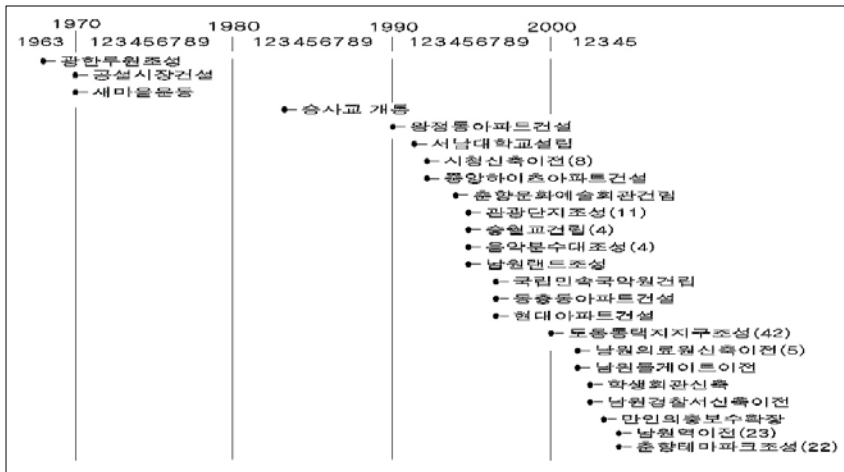


그림 5. 남원의 시각적 경관 변천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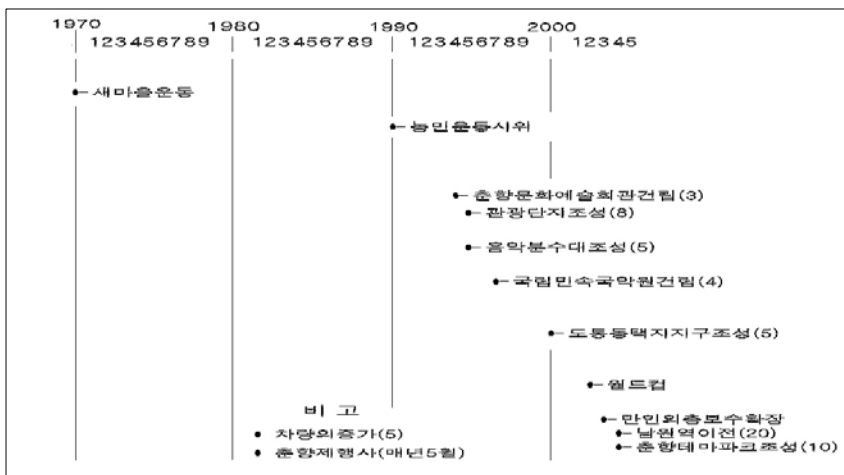


그림 6. 남원의 청각적 경관 변천의 시기

85명¹³⁾의 응답자가 그린 인지지도(image map)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경관요소를 케빈 린치가 분류한 다섯 개의 경관요소로 나누어 그 빈도수에 따라 51%이상, 26~50%, 1

13) 102명의 전체응답자중 인지지도(image map)에 대한 유효응답자는 85명이었다.

0~25%의 세등급¹⁴⁾으로 나누어 도면화하고 분류·작성한 것이 표7, 그림7이다.

케빈 린치(Kevin Lynch, 1960)의 분석결과와 같이, 통로(paths), 결절점(nodes), 경계(edges), 지역(districts), 랜드마크(landmarks) 등의 5개 이미지 구성요소가 모두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통로(paths)와 랜드마크(landmarks)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것으로써 결절점(nodes)을 제외한 다른 구성요소 모두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인다.

예를들면, 통로(paths)로서 동편제거리와 소리길은 관광(양림)단지를 중심으로 요천상하를 이어주는 가로에 해당하는 길이고 통로중 명료성이 가장 높다. 또한, 랜드마크(landmarks)로서 광한루원은 사적 제303호로 지정되어 있는 남원시의 대표적인 전통 누원으로 이미지 구성요소중 식별성이 가장 높다. 경계(edges)로서 요천은 광한루원 다음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구(districts)로서 관광(양림)단지 등은 광한루원에서 요천을 건너 마주 보이는 곳에 자리한 27만6천평 규모¹⁵⁾의 관광지이자 관광개발의 중심지이다. 이들 구성요소들은 모두 요천을 중심으로 가까이 접하고 있고 도시의 식별성(legibility)이 높은 곳으로 남원시의 중심적 공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14) 케빈 린치는 관찰자가 여러 가지 요소를 그 중요도에 따라 major element와 minor element의 범주로 구분한다는 측면에서 주로 두가지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고, 또한 그 인지 빈도에 따라 12~25%, 25~50%, 50~75%, 75%이상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관찰자가 75%이상 인지하는 요소는 드물며,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75%이상의 빈도를 갖는 요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참조: Kevin Lynch(1960), The Image of the City, The MIT Press, pp.143~145.

15) 출처: 춘향고을 <http://www.chunhyang.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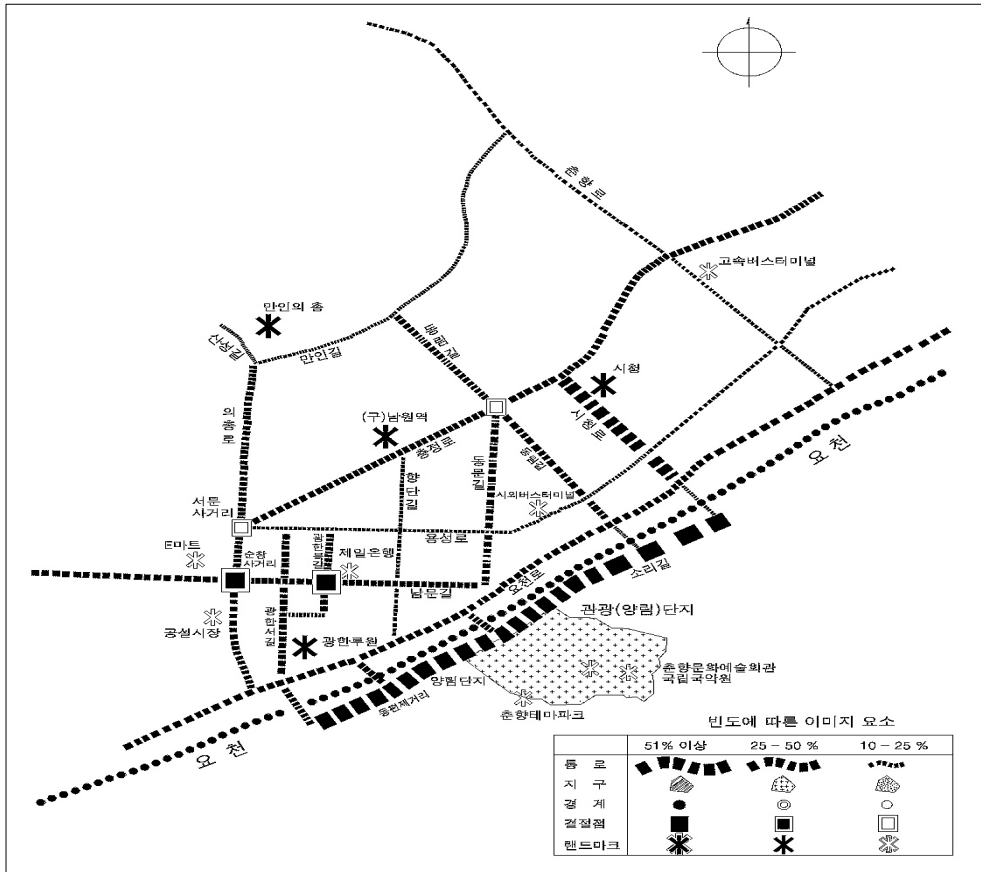


그림 7. 인지지도에 의한 남원시의 시각적 경관요소

원시청, 춘향문화예술회관, 관광단지, 승월교, 국립국악원 등은 인지지도에 명확히 나타나 남원시민들에게 명료성이 높지만, 2000년 이후 건설된 도통동택지지구, 남원의료원, 학생회관, 남원경찰서 등은 인지지도에 표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public)인 이미지 요소로써 아직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6.2 인지지도에 의한 청각적 경관요소와 특성

시각적 인지지도상에 특징적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의 위치와 소리를 표시하도록 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하여 도면화하고 분류·작성한 것이 표8, 그림8이다. 소리에 대한 인지지도는 도시의 물리적 공간구조를 도면화하는 것이 가능한 시각적 경관의 인지지도와는 달리, 소리 그 자체를 물리적으로 표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도시의 시각적 인지지도상에 표현된

있다.

한편, 이미지 구성요소중에서 1990년대 이후 많은 도시의 건축물 등이 조성되었는데, 그중 1990년대 이후 건설된 남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청각을 이미지화하여 그리도록 한 것이다.

표 7. 인지지도에 나타난 시각적 경관요소

분류	51%이상 (43회이상)		26~50% (21~42회)		10~25% (9회~20회)	
	요소	빈도	요소	빈도	요소	빈도
통로 (Paths)	동편제거리 소리길	47	의총로	37	향단길	18
		45	남문길	35	용성로	18
			승월교로	33	춘향로	18
			충정로	32	쑥고개길	17
			요천로	31	만인길	14
			광한북길	30	동립교	12
			동립길	27	남원대교	11
			시청로	27	산성길	11
			승사교	26		
			춘향교	24		
			동문길	23		
			광한서길	21		
랜드마크 (landmarks)	광한루원	54	만인의충	24	춘향테마파크	19
			시청	21	춘향예술회관	17
			(구)남원역	21	시외버스터미널	14
					고속버스터미널	13
					제일은행	13
					E-마트	11
결절점 (Nodes)			순창사거리	26	향교오거리	12
			남문사거리	24	서문사거리	9
경계 (Edges)	요천	49				
지구 (districts)	관광(양립)단지	48				

주) 빈도는 총 85매중의 빈도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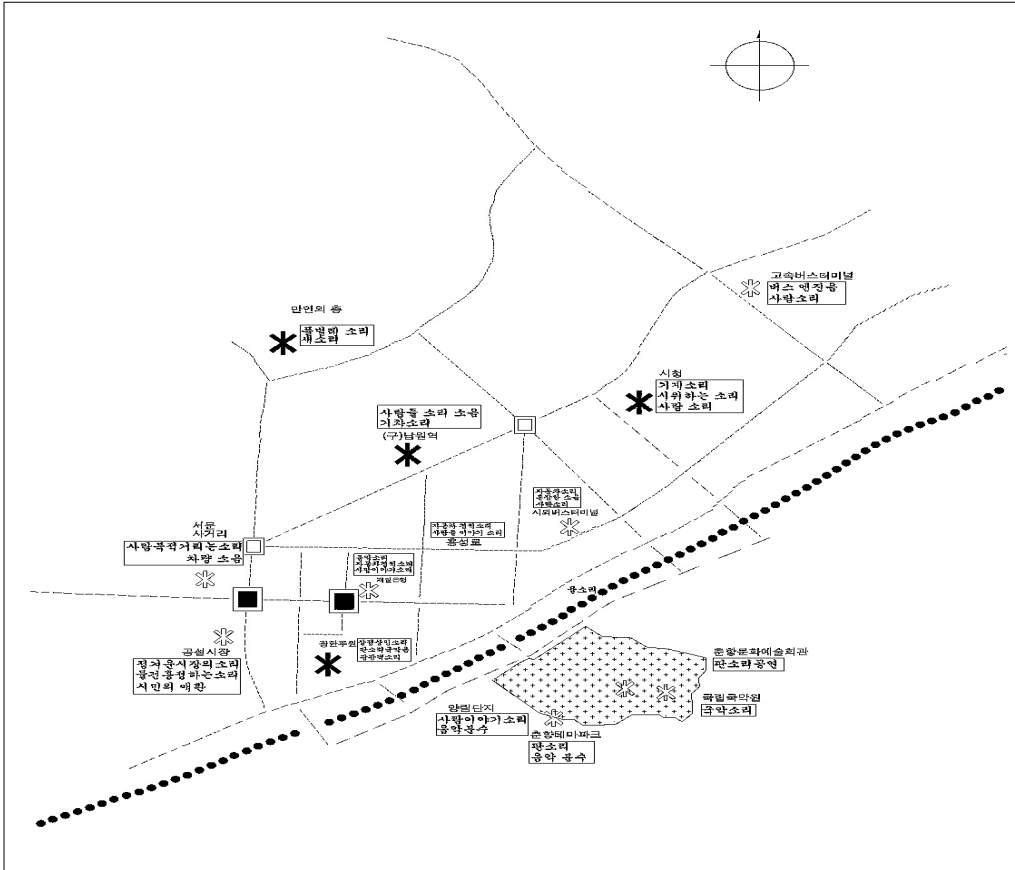


그림 8. 인지지도에 의한 남원시의 청각적 경관요소

이 응답결과를 정리하여 분류하면, 표8에서와 같이 청각적 소리환경의 구성요소는 크게 자연음과 인공음으로 분류되고, 인공음은 기계음, 사회음, 지시음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남원의 청각적 경관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되며, 이중 자연음은 9.7%, 인공음은 90.3%를 차지한다. 이처럼 남원의 도시의 소리환경은 인공적인 소리환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지역의 인공적인 소리환경을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공음은 기계음 12.7%, 사회음 74.6%, 지시음 3.0%로 구성되고 있어 도시의 사회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청각적 인지도가 높은 특성을 엿볼 수 있다.

남원시의 중심부에서 들을 수 있는 청각적 경관중 자연음(9.7%)과 사회음중

표 8. 청각적 경관에 대한 인지도

중분류	소분류	응답포시	빈도(명)	비율 (%)
자연음	자연음	산새소리	2	1.5
		새·바람소리	1	0.7
		물소리	5	3.7
		(계곡)폭포소리	1	0.7
		풀벌레소리	1	0.7
		자연의소리	3	2.2
소 계	13	9.7		
인공음	기계음	자동차소음	9	6.7
		엔진소리	1	0.7
		버스소음	2	1.5
		화물차소음	1	0.7
		기차소리	4	3.0
	소 계	17	12.7	
	사회음	음악소리	4	3.0
		음악분수대소리	6	4.5
		국악(창)	18	13.4
		관소리	36	26.9
농악소리		1	0.7	
관광객소리		2	1.5	
노인들소리		1	0.7	
상인들소리		5	3.7	
사람들소리		18	13.4	
웃음소리		1	0.7	
일상의소리(서민들)		4	3.0	
박타는소리		1	0.7	
시위하는소리		2	1.5	
시민의애환	1	0.7		
소 계	100	74.6		
지시음	신호등관소리	1	0.7	
	경적소리	3	2.2	
	소 계	4	3.0	
합 계			134	100

국악/관소리(40.3%)와 사람들소리(13.4%)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과 도시의 매력적이고 활력적인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남원시의 소리환경에 대한 정체성(identity)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즉,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전통적 소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축제 등의 전통적·지역적 특성을 갖는 생활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매력적이고 활력있는 소리환경의 어메니티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계음 등의 소리들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구조의 개선과 주민의 의식을 개선하고, 도시의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의 소음환경을 배려한 제어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 분류상, 기조음(keynote sound), 신호음(sound signal), 표식음(soundmark)으로 구분하면, 자연음, 기계음, 사회음의 대부분은 기조음으로, 지시음은 신호음으로, 그리고 사회음중 국악/관소리는 표식음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특히, 표식음으로 국악·관소리가 40%로 가장 많은 인지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때, 도시의 청각적 경관자원으로써 중요하다고 생각된다.¹⁶⁾

16) 기조음(keynote sounds)은 청각적 지각에 있어 배경(地)에 해당하고, 모든 소리 지각의 기초가 되며 의식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지만 결코 빠뜨려서는 안되는 소리이다. 신호음(signals)은 청각적인 도형(圖)으로써 의식적으로 들리는 모든 소리이다. 표식음(soundmarks)은 특정의 사운드스케이프를 뚜렷이 부각시키고, 그 음향적 생활에 독자성을 부여하거나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의해 특히 존중되고 주의시되는 특질을 지닌 소리이다.

도시공간의 청각적 소리환경의 특징을 장소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광한루원과 관광(양림)단지, 춘향테마파크 및 국립국악원 등은 판소리가 청각적 소리환경의 상징적 의미로써 소리환경의 특징을 부여하는 장소로 인식되며, 공설시장은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소리환경의 장소로, 그리고 만인의총은 자연의 소리환경을 대표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겠다.

7. 결론

이 연구는 도시의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인지하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인지도로부터 어떠한 시각적 경관의 이미지 구조와 특성이 표출되는 지, 또한 청각적 경관이라는 사운드스케이프의 관점에서 도시의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어떠한 이미지특성으로부터 지역적 정체성을 이끌어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8가지의 자유기술형식과 시각적·청각적 인지지도(image map) 그리기로 구성된 내용의 인터뷰조사를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102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시민이 남원에 대해서 떠오른 이미지는 도시·건축물, 지리산, 역사소설, 특산물, 관광, 국악, 감성적 의미, 깨끗한 환경, 운동 등의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의 좋은 거리/장소는 자연경관(풍경)이 있는 곳, 심리적 안정과 휴식, 생활체육활동의 공간, 남원의 지역적 독자성을 표출할 수 있는 공연·행사가 있는 곳, 그리고 역사·문화 등의 특성을 표출하는 지역적 명소 등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싫은 거리/장소는 향락·퇴폐적인 곳과 불법주차 및 교통혼잡에 의한 좁은 가로공간의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각적 경관의 추천장소는 자연경관(풍경)과 심리적 안정, 그리고 역사·전통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표출하는 곳이며, 청각적 경관의 추천장소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남원의 전통적 소리를 기조로 공연·행사하기 위한 장소, 그리고 자연의 소리와 인간의 생활환경을 엿볼 수 있는 장소 등으로 파악되었다. 남원의 시각적·청각적 경관의 변천은 1970년의 새마을 운동, 그리고 1990년 이후 새로운 건축물과 도시확장 등을 가장 중요한 변천시기로써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의 인지지도 분석 결과, 케빈 린치의 5개 이미지 구성요소가 모두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통로(paths)와 랜드마크(landmarks)가 가장 많이 인지되고 있다. 특히 높은 시각적 인지도를 보이는 것은 결절점(node)를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가 명확히 인지되어 남원시의 물리적 공간의 이미지 요소로써 식별성과 명료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청각적 경관으로써 국악, 특히 판소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으며, 남원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시장의 소리환경과 자연적 소리환경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 시각적·청각적 경관에 대한 장소의 식별성 또는 명료성이 남원시의 일부 특정영역에서 비교적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문헌

1. Kevin Lynch(1960), *The Image of the City*, The MIT Press.
2.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88), 건축·도시계획을 위한 조사분석방법.
3. R. Murray Schafer(1977), *The Tuning of the World*, Alfred A. Knopf.
4. 鳥越けい子(1999), *サウンドスケープ[その思想と実践]*, 鹿島出版會.
5. 鳥越けい子 지음, 한명호 옮김(2005), *사운드스케이프 -그 사상과 실천-*, 도서출판 세진사.
6. 도시디자인연구회 옮김(1997), *도시디자인수법*, 발언.
7. 나루미 구니히로, 김덕삼·김경인·김중하(2000), *도시경관의 형성수법*, 대우출판사.
8. 이규목(1993), *경주시 도시경관과 그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권 4호, pp.39~53.
9. 한은실, 박상필, 김기호(2005), *시민이 인지하는 서울의 이미지 구조 해석*,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pp.169~181.
10. 이규목(2004), *한국의 도시경관*, 열화당.
11. 일본건축학회편, 배현미/김중하 역(2002), *인간심리행태와 환경디자인*, 모문당, pp.276~279.
12. 進士五十八(2001), *アメニティ・デザイン -ほんとうの環境づくり-*, 學藝出版社.
13. 日本建築學會編(2000), *よりよい環境創造のための環境心理調査手法入門*, 技報堂出版.
14. 鳥越けい子(1991), *サウンスケープの考え方とその現代社會における意義*, 日本機械學會[No.910-41] 環境工學總合シンポジウム '91 講演論文集 '91.7.11~13・川崎市], pp.495~498.
15. 鳥越けい子(1987), *サウンドスケープ研究の課題と展望-神田地區におけるケーススタディーを通して-*, 騒音制御, Vol.11, No.3, pp.141~146.